

'밀레니엄 특수' 만들지 못한 기획력 부재 아쉬워

그나마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과 《20세기 우리 역사》로 갈증 씻어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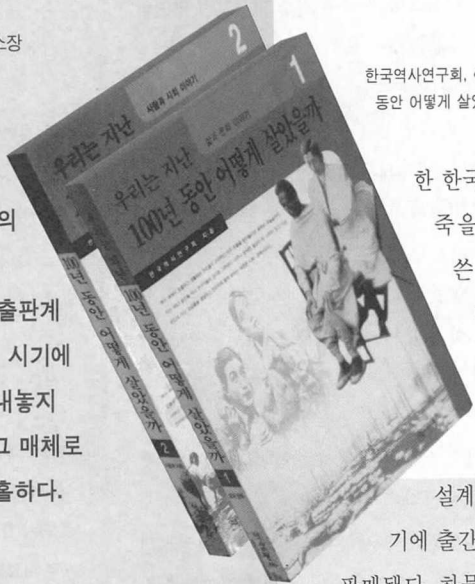
한세기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책 고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 출판계는 반성과 전망이 화두가 될 이 시기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기획물을 내놓지 못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매체로 살아남기 위한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매체인 책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출판 본연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출판에 대해서 인접분야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메타담론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책의 유효성은 책이라는 매체 자체의 엄연한 '사실(fact)'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그 엄연한 사실 중의 하나가 책은 넘치는 정보 중에서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의 핵심만을 정리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는 매체라는 것이다. 이런 출판행위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종이책의 유효성은 여전히 증대되고 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20세기도, 두번째 밀레니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대중들이 20세기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공동의 화두를 찾고자 하는 이런 특수한 시기를 맞이하는 것은 출판 기획자에게는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러나 국내 출판계는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멍청하게' 새로운 세기, 새 밀레니엄을 맞이해야만 할 운명이다.

우리나라에서 26년간 살면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가 금년초에 출간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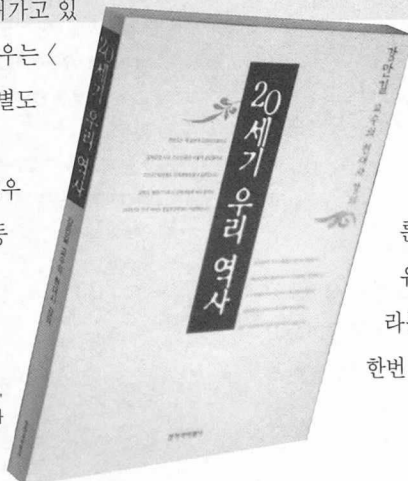
한 한국 체평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중앙 M&B)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절묘한 시기에 출간돼 30만부 이상 판매됐다. 하물며 한 해도 아

니고 한 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중은 지난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 화두를 찾으려는 모색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회를 맞이해 이웃 일본은 몇 년 전부터 각 분야별로 한 세기를 정리하는 크고 작은 기획물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국내에도 푸른 숲에서 일부를 번역 출간한 이와나미(岩波)의 《21세기 문제군》 시리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와 아사히(朝日)신문사는 나란히 《일록(日錄) 20세기》와 《주간 20세기》를 경쟁적으로 펴내고 있다. 연도별로 한권의 주간지로 펴내는 이 책들은 해당년도의 주요한 사건을 풍부한 사진자료를 사용해 정리해가고 있다. 고단샤 같은 경우는 <스페셜 이슈>판을 별도로 펴내고 있다.

역사비평사의 《우리는 지난 100년 동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비평사



안 어떻게 살았을까)는 한국역사연구회가 펴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의 완결편으로, 딱히 세기 말을 맞이해 기획한 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은 지난 세기를 삶과 문화, 사람과 사회, 정치와 경제 등 세 권으로 나눠 각 주제별로 생활사적 측면에서 조감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세기를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낙오된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봄으로써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문화적 삶의 양태를 우리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창작과비평사의 《20세기 우리 역사》(강만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고루 풍부해지고 더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또 발전해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중 지난 한 세기를 정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민족사적 과제를 확실히 하고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를 전망하려는 책이다. 강의식으로 전개된 이 책은 역사발전의 큰 방향에 잣대를 맞춘 논평이나 의미추구에도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류의 기획서는 그야말로 손에 꼽힐 정도다. 기록습관이 부재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설사 자료사진을 찾아낸다 해도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 비용을 지불하며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등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세기말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정리하는 기획서가 거의 없다면 한 것은 분명 책 자체의 장점을 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독자들이 서점에서 접하게 되는 책들은 시각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채 즐기차게 간행되고 있는 역사서나, 매번 반복되는 특정인물 중심의 역사 소설 일색이다. 가벼운 정보를 다룬 매체와 나눠먹으며 겨우 명맥이나 유지해야만 하는 출판풍토에서 책이라는 아날로그 매체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